

LBS법, 그것이 알고싶다!

퇴근길에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네이트 드라이브를 가동해 근처에 할인마트를 찾았다. 네이트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방향을 따라 할인마트에 들어섰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해서 보니 그 할인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문자메시지로 날라왔다. 쿠폰을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좀더 싸게 산 다음 다시 시계를 보니 중요한 TV 프로를 봐야할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차에 올라타고 다시 네이트 드라이브를 가동해 가장 빠른길 안내를 받아 가까스로 늦지않게 도착했다.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도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곧 지금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우리곁에 다가올 예정이다.

정부는 9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관서 등 공공구조기관이 긴급 구조요청을 받을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후 LBS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이 법안은 9월 20일 현재 정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최근에 위치정보에 관한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했다. 하나는 삼성SDI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위치확인서비스를 통해 감시를 받아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난당한 등산객의 위치확인을 하지 못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의 두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LBS법의 의미와 이 법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 / 최성원 매직하우스테크놀로지스 기획실장

정부는 작년부터 LBS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보호 문제 등을 강력 제기하면서 계속 미뤄져 왔는데, 이번에는 민간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놓은 상태다.

LBS법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정보유출 문제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가 강력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BS법 제정 과정과 주요내용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과 남용을 막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사업 희망자도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특히, 개인 또는 물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7세 미만의 아동, 치매 및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능력

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의 친권자나 후견인, 부양의무자 등이 정신질환자 등의 신체나 생명보호를 위해 이들을 대신해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인의 사생활 정보는 최대한 보장되던 산악 조난 등 위급한 상황을 맞은 사람이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도 곧바로 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 8월 22일에 발생했던 등산객 김모씨 사건은 이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LBS 법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생겨난 여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LBS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김모씨처럼 헛되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사업자(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분류와 지정·퇴출요건 규정 △사업자로 인한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공공목적의 제공 의무화 방안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표준화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LBS(Location-Based Service)

LBS의 개념과 국내외 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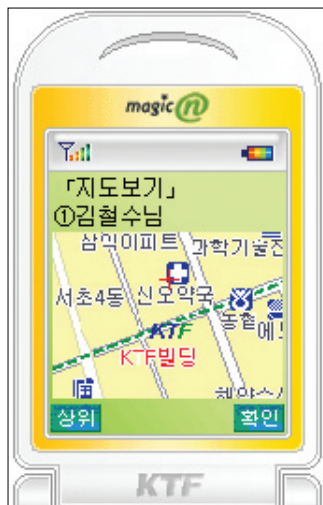
그럼 LBS가 무엇이며,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까?

LBS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단순히 위험에 처한 사람만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LBS란 Location-Based Service의 약자로서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 개인이나 차량 등의 위치를 파악해 긴급구조, 교통정보 등을 서비스하는 새로운 산업이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친구찾기 서비스나 네이트 드라이브, 케이웨이(K-way)와 같은 교통정보제공 등 양적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질적으로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대표적인 LBS기반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친구찾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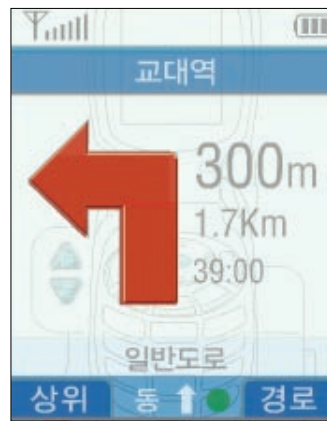
▲ 친구찾기

친구찾기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미리 등록된 친구리스트에서 상대방(친구)를 선택하거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해 상대방(친구)의 위치를 찾는 서비스이다.

단 상대방이 서비스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본인의 전화번호가 상대방에 등록돼 있어야 하거나 상대방이 인증번호를 입력해야만 상대방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2. 교통정보(텔레매틱스)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흔히 텔레매틱스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로서,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의 경로



▲ 네이트드라이브



▲ 아이나비

골목길은 서비스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위의 네이트 드라이브 화면을 보면 진행방향을 알려주며, 목적지까지의 남은 거리, 도착시간을 알려준다.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화면처럼 텍스트위주로 서비스하는 것과 지도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있으며,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PDA를 통해 교통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다.

3. 세이프(Safe) 카드

LBS가 교통정보나 친구찾기 서비스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부정사용방지 기능도 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크레디프와 함

계 세이프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이프플러스란 카드를 사용한 가맹점과 사용자의 휴대폰 위치를 비교해 위치가 다를 경우 사용자에게 SMS를 보내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서비스이다.

4. 화물 위치 추적

예전엔 물건을 주문하고서 주문이 제대로 됐는지, 물건이 제대로 오고 있는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다. 요즘은 홈쇼핑 등에서 물건을 사거나 택배회사를 이용할 경우 화물의 현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화물위치추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언제 택배가 도착할 것이라는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화물의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밖에 KTF는 9월중에 ‘휴대폰 기반의 보행자 길찾기(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위치찾기를 업그레이드한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최근 수도권 지하철역에 설치된 중계기를 활용, 지하철역 단위의 위치정보까지 알려주는 LBS의 정밀도를 향상했으며, 보행자 길안내 서비스와 어린이위치확인서비스(I-Care)를 출시하는 등 시장 확대에 나섰다.



▲ 세이프플러스

LG텔레콤도 독자 텔레매틱스 브랜드(ez 드라이브)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 안에 보행자 길찾기, 법인용 배달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LBS기반의 모바일게임을 통해 자기 근처의 친구 또는 제3자와 네트워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LBS 관련 서비스는 종류가 다양한 데 비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다. 친구찾기의 경우 대부분 정확한 위치가 아닌 동단위(역삼동, 가락동) 정도의 정보만을 알 수 있고, 교통정보는 위치는 비교적 정확한 편이지만, 골목길이라든지 좁은 도로,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의 경우 네이트 드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막힌 길을 피해서 가는 등 때로는 편리하기도 하지만, 좁은 도로에서는 GPS 정보 수신이 되지 않거나 길을 찾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종종 발생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럼 해외에서는 LBS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들이 긴급전화 911 사용시 무선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고(E-911), 2005년까지 50~150m 정확도의 위치정보를 모든 휴대전화에 제공하도록 한 상태이다.

미국은 이에 앞서 군사용 GPS위성 등 국가주도로 LBS기반을 조기에 구축, 위치측정 및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관광 명소,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위치정보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렌터카 업체인 허츠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수신단말장치와 전미자동차협회(AAA)와 물류회사인 패텍스의 호텔, 음식점 등 각종 지리정보를 결합한 '네버로스ٹ(Never Lost)' 라는 일종의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역시 긴급전화 E112에 발신자 위치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제법을 제정했고, 미국 GPS위성에 맞서 오는 2007년 갈릴레오 위성을 쏘아올려 독자적인 위치측위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LBS(Location-Based Service)

LBS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LBS가 개인의 정보, 위치의 자유를 억압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들처럼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LBS법이 제정, 시행되면 현재 제공되고 있는 LBS 관련 서비스들도 훨씬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LBS 사업 영역이 휴대전화를 통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친구찾기'와 같은 GPS서비스, 카드사의 본인 확인용 세이프 카드 등 현재의 한정된 서비스에서 도난차량 회수, 컨테이너 물류추적 등 보안, 복지 분야 등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LBS 기반의 서비스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LBS시장은 지난해 전년대비 40% 성장한 3,812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36.3% 성장한 5,19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또 올해 지상파 LBS사업자가 선정되면 이를 뒷받침하는 신규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와 LBS 관련 콘텐츠나 솔루션을 개발하는 CP(Content Provider), SP(Solution Provider)들을 중심으로 비약적 성장이 예상된다.

LBS 산업협회의 예측에 따르면 2007년경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생산 유발 9조9,000억원, 고용창출 11만명, 부가가치 유발 5조6,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LBS법안이 통과돼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침체돼 있던 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BS가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삼성SDI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법인 휴대폰을 친구찾기에 등록해 직원에게 나눠주어 위치를 추적할 수도 있다. 또한 배우자나 특정인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흥신소 등에서 친구찾기 서비스를 악용할 수도 있다.

업무시간에 소위 땡땡이를 치는 일부 영업사원이나 아내 몰

래 술 한잔하는 남편들은 LBS 관련 서비스가 반가울 리 없다. 땡땡이를 가지고 다니거나 땡땡이가 없던 시절에는 업무시간에 사무실을 갔다오거나 야근을 핑계로 술 한잔하기가 편했지만,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는 그마저 어려워졌는데, LBS를 통해 위치까지 추적한다면 더 이상 땡땡이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어찌됐든 이러한 LBS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추적 기술과 확인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 등을 위해 관련 핵심 인프라와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고 LBS관련 기술의 표준화도 서둘러야 할 부분이다.

지금 국내 업체들이 GPS탑재폰을 만들기 위해 미국 켈컴의 LBS 미들웨어 플랫폼인 지피에스원(GpsOne)을 수입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상당한 부담이다. 우리가 직접 CDMA 칩을 개발하지 못해 매년 수백억원의 로열티가 켈컴사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GPS폰에서 역시 또다시 켈컴이라는 기업에 종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개인정보가 최대한 보호되면서 생활이 조금더 윤택해질 수 있는 LBS관련 서비스를 적극 찬성한다. 어떤 것이든 처음엔 위험한 점이 더 커보이기 마련이다. 물론 단점들을 무시해선 안된다. 인터넷뱅킹도 처음엔 편리한 점보다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점이 강조돼 인터넷뱅킹을 하면 나의 신용정보, 통장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것으로 생각됐지만, 공인인증서와 시큐리티 카드를 통해 보완해 지금은 2,200만명이 이용하는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가 됐다.

이처럼 LBS 관련 서비스들도 이러한 단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다. 다만, 서로의 알력 때문에 이러한 법 개정이 늦어진다면 삼성SDI 근로자, 등산객처럼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최대한 신경써서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법이 시행되길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